



weekly

2021.07.05.[월]

주요 보험동향 자료

*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자료

내 용

(주)대구은행 등 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 결과 금융위원회2021.06.24.

금융위원회는 '21.6.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로 신청('21.4.23, 5.28.)한 31개사 중 8개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함. 본허가를 신청한 (주)아이지넷은 지난 예비허가 심사과정('21.1.13.)에서 지적되었던 사업계획 타당성을 보완한 것으로 평가되어 금일 본허가를 받음. 예비허가를 신청한 7개사 중 6개사 ((주)대구은행, (주)전북은행, KB캐피탈(주), 교보생명(주), 신한생명(주), (주)KB손해보험)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개사(인공지능연구원)는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비허가를 받지 못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개최결과 - “핀테크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주제로 핀테크 투자·채용 등 실질적 성과 - 금융위원회2021.06.25.

제3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5.26(수)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 이후 현재까지 25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144만 페이지 이상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운영 중임. 사전·현장행사에 참여한 178개 핀테크 기업 중 29개사가 총 1,337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투자유치 성공률 16.3%)하였음. 54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 등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였고, 핀테크 기업의 실제 채용 절차도 진행하여 최대 170여명의 채용을 진행할 예정임. 또한 13개 국가의 39개 해외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투자사 등이 온라인 전시에 참여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협력의 기회가 마련됨

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와 소비자중심 경영정착을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 개최 -

금융위원회2021.06.29.

금융위원회는 6.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함. 금번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함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금융위원회2021.06.30.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 명)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듦.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함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보건복지부2021.06.28.

보건복지부는 7월「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를 발간함.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2.2%에 이르렀으며, 세부 영역별로는 보건(공공사회지출 대비 40.8%), 노령(26.1%), 가족(11.1%) 분야 순으로 지출 구성비가 크게 나타남.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가구의 30.2%(615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한편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인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2019년 기초연금 지급률은 66.2%(남자 59.0%, 여자 71.6%),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은 8.6%로 나타남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보건복지부2021.06.30.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의료정보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간서비스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인신체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고 밝힘

입법자료

내 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5인2021.06.17.

국민연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납입고지 등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2021.06.24.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함.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노령연금 감액자 절반의 월소득은 253만원~353만원까지로 이들을 고소득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에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규정을 제외하여 노령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살리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2021.06.25.

의족, 의수 등의 신체보조기구는 이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신체의 일부로, 이의 파손은 신체에 부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보상의 폭을 넓히고자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2021.06.28.

피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음. 이에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21.06.28.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사안내

내 용

「지금여력제도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공동세미나

보험연구원 외2021.07.13

해외자료

내 용

연방금융감독청, 감독에 EIOPA의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침 적용 예정

독일(BaFin)2021.06.28.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은 보험업 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감독 요구 사항(The Supervisory Requirements for IT in Insurance Undertakings - VAIT) 개정 과정에서 EIOPA의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침을 적용할 예정임

Superintendent Laceywell Announces New DFS Report on New York Domestic

미국(DFS)2021.06.10.

DFS는 저탄소 전환으로 발생하는 금융위험에 대한 뉴욕 보험회사들의 익스포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보험회사들의 투자가 탄소집약적 부문에 높은 익스포저가 있으며,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보다 높은 익스포저를 보이고 있음

New insurance Code – better protections & tough new sanctions

호주(ICA)2021.06.30.

호주 ICA(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손해보험에 관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이 7월 1일자로 발효된다고 발표함. 실천강령은 강화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만 호주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